

축구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이, 노동, 시장, 국가에 대하여

Kai Froeb

이 번역에 관하여

이 번역은 AI를 이용한 기계 번역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사람이 전체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feedback@reflexivitypress.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 책을 구매하시고 오류를 알려 주신 분께는 수정본을 전자책으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저자
Kai Froeb
https://kai.froeb.net

출판사
Reflexivity Press
São Martinho do Porto
카이 프뢰프 에디션

최신판 및 정정 안내: https://reflexivitypress.com/ko/books/froeb-fussball-essay
의견: feedback+ko.fussball-essay.v2.8@reflexivitypress.com
표지: https://reflexivitypress.com/en/about/cover-art/

간행
2026-11-17
번역: 2026-11-19
버전 2.8
Typeset with LaTeX (LuaHBTeX, Pandoc + Eisvogel)

집필 안내
이 책은 언어 모델 Claude (Anthropic)을 활용하여 집필되었다. 구성, 내용과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번역은 AI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작업 방식은 저자의 글에 설명되어 있다: https://reflexivitypress.com/ko/about/machines-that-write/

© Copyright 2026 by Reflexivity Press, São Martinho do Porto.
모든 권리 보유.

Zero Marginal Cost License 1.3 (ZMC 1.3)

독자 여러분을 위한 요약

한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장벽이 없어야 한다.

허용되는 사항

- 저작물을 무료로 읽고, 내려받고, 복제할 수 있다.
- 저자, 출처 및 라이선스 표시와 함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디지털 배포할 수 있다.
-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파일 형식을 기술적으로 변경하고 접근성을 위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개별 사본을 인쇄하거나 인쇄를 의뢰하여 선물할 수 있다. 직접 비용은 이윤 가산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 자신의 개인적·비공개적·비상업적 용도를 위해 번역을 만들 수 있다.
- 저작물을 교육과 연구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상업적 이용 시 학술 기준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단, 인용 모음집으로 저작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조건

이용은 비상업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개적으로 배포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저자, 저작물 출처 및 라이선스를 표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법적 또는 기술적 제한을 부과하거나 저자 또는 출판사의 지원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 외의 모든 권리는 유보된다

이 라이선스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이용만을 허용한다. 그 이상의 모든 이용은 법적으로 이미 허용되지 않는 한 권리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법정 이용 권한과 보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는 별도의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중요 참고 사항: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독립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것은 완전한 **ZMC 1.3**이다:

https://reflexivitypress.com/ko/zmc/



저자에 대하여

Kai Froeb(*1963)은 포르투갈 대서양 연안의 상마르티뉴두포르투에 거주합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저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책은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자신의 사고로 검증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구조 자체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본문과 다를 경우, 그것은 이 책의 한계에 도달했거나 당신 사고의 특성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둘 다 단순한 동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오랫동안 평행하게 달려온 두 개의 궤적을 거쳐 왔습니다. 하나는 뤼네부르크의 고등학교 시절과 괴르데 시민대학의 여름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하나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 길은 수학, 정보과학, 경영학, 문화학, 법학으로 이어졌지만, 학위는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않아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0년 코모도어 CBM 8032에서 바이젠바움의 ELIZA 복제판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지원, 프로젝트 관리, 교육——처음에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하우스에서, 다음에는 대규모 IT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10여 년간 기업 내 위원회와 노동조합에서 활동했습니다.

두 궤적이 하나라는 것은 늦게 밝혀졌습니다. 40년의 소프트웨어 작업에서 습관이 된 것——구조 분해, 의존성 가시화, 당겼을 때 무엇이 견딜 수 있는지 검증——은 철학적 논증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기법입니다.

1998년 이래로 Froeb는 **hegel.net**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11개 언어로 제공되는,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가장 포괄적인 다국어 헤겔 자료이며, 헤겔과 19세기 헤겔학파의 디지털화된 원본 판본 500여 점을 포함한 공개 아카이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hegel.net을 통해 Johannes Heinrichs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Froeb는 현재 Heinrichs의 작품을 출판인으로서 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학창 시절에 유래했으며, 그 이후로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진리는 전체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는 통합을 요구합니다——그래서 들리는 것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부정확하거나 간과된 점을 발견하신다면, 당신의 비판은 이 책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입니다.

Zur Herkunft dieses Textes

In meiner Grundschule in Belgien gab es jeden Morgen Gymnastik. Ich habe jede Stunde darauf gewartet, dass sie vorbei ist, und bei Sportübungen geht es mir bis heute so. Beim Mannschaftssport wurde ich als Letzter gewählt. Im Fußballverein, in den meine Mutter mich anmeldete, durfte ich Torwart oder Verteidiger spielen, weil das niemand wollte; nach ein paar Monaten waren der Verein und ich uns einig. Beim Judo habe ich jahrelang meinen weißen Gürtel verteidigt. Das Beste daran war das Malzbier mit meinem Vater danach. Sportübertragungen im Fernsehen bedeuteten, dass die Zeichentrickserie ausfiel.

Später habe ich mit Kollegen Fußball geschaut, und hier im Café in Portugal tue ich es wieder. Nicht wegen des Spiels — das langweilt mich noch immer. Die Leute freuen sich, und man kommt ins Reden.

Genau das ist der Gegenstand dieses Essays. Wie bildet sich dieser Zusammenhalt? Woher kommt die Tradition, das Gefühl von Gemeinschaft, das „Wir“ eines Menschen, der keinen Ball berührt hat? Dass Politiker und Firmenchefs das benutzen, ist die kleinere Frage. Die größere ist, warum es sich benutzen lässt.

목차

축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

한 골 1
놀이와 노동 1
팬 3
왜 결속시키는가 5
왜 하필 축구인가 7
이면 7
누가 버는가 9
거대한 "우리" 12
열린 채로 남는 것 14

축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한 골

골이 터지고[1], 경기장 전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안습니다. 수천 개의 거실에서 사람들은 마치 선수들이 들을 수라도 있는 것처럼 TV를 향해 고함을 지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 하지만 그는 공을 건드린 적도 없고, 선수들을 아무도 모르며,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놀이와 노동

고대부터 사람들은 필수 노동, 휴식, 자유로운 활동을 구별해 왔다. 현대에는 이것이 흔히 노동과 놀이의 대립이 된다. 놀이는 목적을 그 자체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고, 노동은 임금, 빵, 생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부자유해 보인다. 그렇다면 놀이는 온갖 강제로 가득한 세계에서 자유의 섬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한다. 축구 선수는 달리고, 패스하고, 슛하고, 모든 걸음이 목적을 추구한다. 공을 지키는 것, 동료를 찾는 것, 골을 넣는 것. 패스는 경기 전개에 기여하고, 경기 전개는 골에, 골은 승리에, 승리는 순위표에 기여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놓인 목적의 사다리 전체다. 놀이도 목적을 순수하게 "그 자체 안에" 지니지는 않는다.

---

1 이 에세이는 크리스티안 이버(Christian Iber), 아제미르 바바레스쿠(Agemir Bavaresco), 루치에로 에스바인(Lutiero Esswein)의 글 「Copa do Mundo – futebol, mercado e identidade nacional」(A Terra é Redonda, 2026년 6월 24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놀이와 자유, 시장과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주도적인 삼분 구도와 여러 모티프 – 단순한 규칙들의 지구적 언어로서의 축구, 팬 소속감의 소비로의 변형, 지구화 속에서 국가의 존속 – 가 나옵니다. 이 글이 취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팬의 "우리"에서, 무목적성이 아니라 목적의 위계에서, 팬 유대의 작동 방식에서, 그리고 경제적 원료로서의 주목에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기쁨은 있다. 움직임에서, 성공한 드리블에서, 정확히 도착한 패스에서 느껴지는 기쁨이다. 그러나 기쁨은 목적들 옆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들 안에 들어 있다.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기쁨을 가지는 것이지, 목적 대신에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휴식을 위해 놀이를 하는 사람도 그로써 목적, 곧 휴식한다는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놀이와 노동의 차이는 한쪽에는 목적이 있고 다른 쪽에는 목적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목적들이 삶 속에 어떻게 뿌리내려져 있는가에 있다. 놀이의 목적들은 틀이 지어져 있다. 즉 그것들은 구획된 공간 안에서만 타당하고, 그 결과들은 제한적이며, 전체는 반복 가능하다. 경기를 지면 다음 토요일이면 다시 시작점에 선다. 노동의 목적들은 실제적 자기 보존의 압력 아래에 있다. 그것을 빗나가면 경기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위, 생계를 잃는다. 놀이가 놀이로 남아 있는 한 놀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로 선수에게서는 노동의 진지함이 놀이 안으로 되돌아온다.

프로는 공터에서 뛰는 소년과 동일한 목적들을 추구한다. 패스에서 승격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사다리를 추구한다. 그에게 더해지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사다리 전체 위에 있는 낯선 손이다. 그는 임금노동자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계약 아래 있으며, 감독에게 복종하고, 경제적 압력 아래 있는 클럽을 위해 일한다. 그가 뛰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온전히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는 구단이 훈련을 잡으면 훈련하고, 구단이 내보내는 포지션에서 뛰고, 구단이 팔면 클럽을 옮긴다. 그의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매 순간 경기를 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낯선 손이 설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며, 이제 계약, 클럽, 감독의 목적 아래에서 원해야 할 것을 원하게 된다. 그의 처지가 예속민이나 노예의 처지와 같기 때문은 아니다. 프로는 법적으로 자유롭고 흔히 부유하다. 오히려 더 온건하고 자발적인 형태로 동일한 구조적 계기가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활동이 낯선 목적 아래 놓인다.

여기에는 축구보다 더 많은 것이 달려 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노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낯선 지휘 아래에서 노는 것이다. 동일한 활동도 그것이 자신의 것인 한에서는 기쁨을 주고, 낯선 의지가 그 위에 서는 순간 짓누른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른 귀로 듣는다.

축구에서는 무언가가 이러한 가혹함을 가리고, 바로 그 점이 축구를 이미지로 그토록 유용하게 만든다. 경쟁, 열한 명의 결속, 공동의 목표가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 – 클럽, 그 소유주, 그 재무제표를 위해 – 제공한다는 사실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팀은 노동 세계의 모범으로 즐겨 사용된다. 직원들을 공동의 골문을 향해 하나로 달려가는 팀으로 상상하면, 그 밑에 있는 자본주의적 형식, 곧 누가 누구의 목적을 수

행하고 결과가 누구에게 속하는가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바로 그 점이 그 이미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용하게 만든다.

정상급 선수에게서 임금노동은 동시에 두 방향으로 기운다. 위쪽으로는 세계적 선수가 너무 드물어서, 보통 노동자는 감히 꿈꾸지 못할 조건들을 요구한다. 아래쪽으로는 그의 경력이 짧고, 몸은 닳아 없어지며, 승인은 경기력에 달려 있다. 폼 저하, 부상, 나이. 그러면 어제의 영웅은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의 자본은 몸이고, 몸은 보통의 직업 경력이 끝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시장 가치를 잃는다. 어떤 연대 기금도 이를 보완해 주지 않는다. 최고 소득자들에게는 돈이 그 충격을 완충한다. 명성의 시절에 수백만을 모아 둔 사람은 그 후 안정된 삶을 누린다. 그러나 그 아래의 많은 선수들, 축구로 어차피 거의 살아가지 못하고 끝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서 있는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에게는 여전히 가혹하다. 정상급 축구는 노동 세계의 예외가 아니라 노동 세계의 첨예화다.

선수들 자신도 이 질서 안에서 상품과 노동력처럼 유통된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같은 더 가난한 지역의 재능들은 일찍 발견되고, 훈련받고, 팔려서, 유럽과 최근에는 돈이 가장 두텁게 모여 있는 곳으로, 즉 축구 자본의 중심지들로 끌려간다. 그것은 다른 모든 자본과 동일한 운동이다. 자본은 싼 힘이 자라는 곳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수익을 이미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끌어당긴다. 이 점에서 축구는 국제적 분업을 작은 규모로 비춘다.

팬

팬은 뛰지 않고 지켜본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건에 괴로워하고, 환호하고, 희망하고, 절망한다. 그를 지탱하는 첫 번째 것은 기량을 알아보는 것이다. 좋은 경기를 본 사람은 무엇인가를 완전히 익힌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높이 평가할 줄 안다. 정작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한다. 가수나 배우, 무용수의 기량을 평가하는 것도 이와 같다. 실행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성취다. 성공한 드리블에 보내는 박수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직 팬이 되지 않는다. 상대 선수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를 견딜 수 없을 수 있다. 팬은 편파적이며, 핵심은 거기에 있다.

그는 그 공동체에 속한다. “나는 샬케 팬이다”, “나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한다” (DE: „ich halte zu Argentinien“) — 그런 말은 한 사람을 특정한 위치에 넣는다. 팬인 사람은 누군가가 된다. 자신의 역사, 영웅, 숙적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이다. 종교, 신분, 평생 직업 같은 오래된 소속들은 무너지

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열린 채 남는다. 클럽은 즉시 손에 잡히고, 어떤 교양도 요구하지 않으며, 사람을 더 큰 질서 안에 세워 주는 답을 준다.

그 배경에는 시장보다 더 오래된 욕구가 있다. 고립되어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인간,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고르는 데 자유를 지닌 인간은 본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로빈슨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가족 안으로 태어나고 시작부터 연관들 속에서 생각한다. 시장이 아직 모든 것을 꿰뚫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거기서 개별자는 자신을 먼저 혈연, 장소, 공동의 역사에서 이해하지, 선택하는 개별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다. 시장은 이러한 연관들을 조금씩 해체하여 온통 개별적인 교환자들로 만든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해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한다. 개별자가 더 고립될수록 소속 욕구는 더 강해지고, 브랜드, 소비 공동체, 팬 집단, 스포츠 종목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공동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실제한다.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가 그러하다. 다만 그들조차도 이미 경쟁과 돈에 얼마나 좀먹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단지 상상된 것이며, 그렇기에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공동의 기호 이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고, 기호와 더불어 생겨나며, 작용한다. 확인된 공통성은 대화에서 도움이 되고,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접점을 제공한다. 같은 클럽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낯선 사람이 아니다. 축구에서는 해체의 징후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지만, 팬은 그럼에도 자신이 다른 팬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체험하고,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을 그들과 공유한다.

지역 클럽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근거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다. 그 팀은 바로 "나의" 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수들 자신은 우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며, 우연히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프로 클럽에서는 그마저도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싸게 사들인 선수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결속시키는 것은 팀 자체가 아니라 팀 주변에 놓여 있는 것에 있다. 대상이 가까울수록 실제적 공통성의 흔적은 더 많아진다. 아마도 지인의 조카가 함께 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직장 동료들이 모두 경기장에 가고, 사무실에서 함께 열광하며,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클럽을 응원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무언가를 공유한다. 클럽은 이러한 공통성을 가시화하고 상징화한다. 여기에는 실제적 토대가 깔려 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은 실제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클럽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눈앞에서 본다.

이것은 단위가 커질수록 달라진다. 모나코나 어떤 섬나라 같은 소국에서는 시민들이 한 도시의 주민들만큼이나 많은 것을 공유한다. 독일, 브라질, 미국,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공동의 토대가 얇아진다. 국가대표

팀이 상징하는 것은 그 밑에 거의 실제적인 공동체를 갖지 못한다. 멀어질수록 흔적은 더 줄어들고, 먼 스타의 경우에는 열광 자체 외에는 실제적인 것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날 스포츠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텔레비전 채널이 두 개뿐이던 시절에는 전 국민이 같은 시간에 같은 추리극 앞에 앉아 있었다. 가족과 함께 보면서, 수백만 명이 같은 순간 같은 화면 앞에 있음을 알았다. 동시성은 거실을 넘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무너졌다. 각자는 자신의 시리즈, 자신의 채널, 자신의 화면을 갖고 있다. 스포츠는 수백만 명이 여전히 동시에 같은 것을 경험하는 마지막 장소들 가운데 하나다. – 마지막 모닥불이다.

왜 결속시키는가

왜 클럽은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강렬하게 결속시킵니까? 사람들이 집착하는 다른 것들과의 비교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 자동차, 레이블, 기술.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그것이 한낱 기호로 남습니다. 그저 다른 운동화 브랜드가 아닌 특정 브랜드를 신는다는 사실 위에 자신의 인격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 성공합니다. 애플 사용자, 할리 라이더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경험하고, 그것을 방어하고,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것이 광고인들의 꿈입니다 – 고객을 신도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곳에서는 브랜드가 이미 거의 클럽입니다.

팬에게는 이 공동체가 이미 있고, 그것은 브랜드에 결여된 것 위에 놓여 있습니다. 브랜드는 소유를 통해 결속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것을 공유합니다. 클럽은 공유된 운명을 통해 결속시킵니다. 승리와 패배, 승격과 강등, 더비, 부상, 이적입니다. 애플 사용자는 토요일에 삼성에게 지지 않고, 할리 라이더는 강등되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고객을 가집니다. 클럽은 고난을 함께 겪은 동지들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함께 열광하고, 기쁨과 실망을 나눕니다 – 공유된 기호 이상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함께 열광하는 것은 미지근한 느낌이 아닙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무언가가 걸려 있으며, 결과는 열려 있습니다. 공포 영화나 스릴러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관객석에 앉아 실제로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긴장과 공포를 즐깁니다. 다만 팬은 영화관 관객과 달리 정말로 영향받는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향받습니다. 함께하는

불안, 함께하는 환호는 그에게 근본적인 것, 거의 실존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은 어떤 조용한 동의보다 더 강하게 결속시킵니다.

스포츠에는 고유한 것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한다고 여깁니다. 열두 번째 선수, 홈 경기, 자신의 응원이 차이를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한 팀에는 힘을 주고 다른 팀에는 압력을 가하며, 홈 어드밴티지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앉아 있는 화면 앞에서는 어떤 선수도 고함을 듣지 못합니다 – 그런데도 팬은 거기서 조금도 덜 열광하지 않고, 자신을 자기 팀 운명의 공동 플레이어로 똑같이 경험합니다. 결속은 영향력이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강합니다.

다음은 경쟁입니다. 애플과 윈도는 승부를 겨루지 않습니다. 각 진영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심판도, 결과도, 결정도 없습니다. 스포츠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가리며 결정합니다. 그것은 두 얼굴을 가진 열정의 고유한 원천입니다.

하나는 서로 맞서는 것, 서로 실력을 겨루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자체입니다. 그것은 경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래퍼들의 말싸움, 유튜버들의 비프(beef), 정치의 공방에도 있습니다. 논쟁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상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한쪽 편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면은 리그 운영의 특성입니다. 선거는 한 번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는 주마다 새로 싸우고, 이기고, 지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다음 시즌이 시작됩니다. 결코 최종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최종적으로 지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 긴장을 만들어내는 기계 – 그래서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래 결속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역사, 고통스러운 역사까지도 있습니다. 모든 클럽에는 사가(saga)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 관중석이 아직 서 있었을 때 거기 있었고, 함께 원정 경기를 갔으며, 마지막 순간의 실점으로 인한 패배를 함께 겪었습니다. 함께 겪은 상처, 다만 결과 없는 상처 – 잃는 것은 경기이지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무결과성이 그것을 결합제로 만듭니다. 쓰라린 패배를 함께 견뎌낸 사람은 실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처럼 연결되지만, 그 대가 없이 연결됩니다. 삶 자체는 흔히 자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갖지 못합니다. 삶은 우연들의 뒤범벅입니다. 클럽의 역사는 결여된 것을 제공합니다 – 자신이 역할을 가지는, 승리와 비극을 담은 서사입니다.

왜 하필 축구인가

이 모든 것은 축구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스포츠 종목에는 팬이 있으며, 각 종목에서 그것에 적용된 동일한 것이 다시 발견됩니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 종목들은 왜 하필 그 종목이 한 나라를 사로잡는지에 대해 고유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흔히 역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크리켓, 미국의 야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했습니다.

축구는 그 이상입니다. 축구는 자신의 기원을 훨씬 넘어 뻗어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 식민주의의 길들을 따라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넓은 지역과 오세아니아에서는 축구가 동일한 문화적 우위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크리켓, 야구, 럭비 같은 다른 종목들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축구는 성장하고 있으며, 토너먼트는 이 지역들을 점점 더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왜 축구가 어떤 세계 지역들을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깊이 사로잡았는지는 별도로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축구가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그것이 스스로 강화됩니다. 지위를 가진 것을 미디어가 크게 부풀리고, 스타들이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부(富)의 관념이 경기의 관념과 결합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근거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는 재능이 필요하고, 후자는 장소, 클럽, 돈이 필요합니다. 축구는 빈 공터와 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직접 공을 차 본 적이 있고, 누구나 함께 뛸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는 것은 오직 능숙한 사람들만 다루는 것과 다르게 소중히 여겨집니다.

누구를 응원할지 선택하는 데에도 여기에는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본래는 자기 도시의 클럽, 자기 나라의 팀입니다. 그러나 출신과 상관없이 기량 자체를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를, 예전에 독일 밖의 많은 사람이 보리스 베커를 그렇게 삼았습니다. 미디어가 대중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크게 부풀리고, 대중이 크게 부풀려진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면

팬은 응원함으로써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적으로 팬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기여하며, 화면 앞의 팬은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팬의 환호는 패스 한 번, 움직임 한 번, 슈팅 한 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팬은 기여합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기여합니다. 팬은 소비자의 반대가 아니라 가장 강렬한 소비자입니다. 티켓, 소시지, 목도리, 유니폼, 잡지, 때로는 주식까지 소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팬은 팬으로서 열광함으로써 경기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깨어 있게 유지합니다. 수백만 배로 불어난 이 관심이 경기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팬들의 주목이 여기서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포츠적 결과와 경제적 결과는 서로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경기장에서 함께 작용하는 사람은 더 드문 사람이고, 화면 앞에서 스포츠적으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목으로 기계 장치를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팬은 정말로 클럽을 돕습니다. 11명이 더 잘 뛰기 때문이 아니라 팬이 열광하고, 그로써 모든 것이 살아가는 관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교 의례의 논리입니다. 의례는 목표를 강제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이 질서를 강화하기 때문에 작용합니다. 그렇게 팬은 팬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클럽을 강화합니다. 팬의 수행이 기여입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경제적 기여이지, 그가 생각하는 스포츠적 기여가 아닙니다.

아마도 팬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 경기에서 자신의 진짜 역할이 돈을 내는 사람의 역할임을 알게 된다면 열광은 더 어렵게 유지될 것입니다. 느껴지는 결과와 실제 결과의 분리는 우연이 아니라 헌신을 순수하게 유지합니다.

주목의 활용이 얼마나 멀리 뻗는지는, 그것이 이제는 경기 자체를 재편한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는 매 경기마다, 냉방이 되는 경기장에서도, 온화한 날씨에서도 전반과 후반 각각에 3분짜리 음수 시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하프타임이 미국 스포츠처럼 네 개의 쿼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존중할 만합니다. 경기들이 북미의 여름에 열렸고, 더위가 선수들을 위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방송사들이 광고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편성 계획과 국가 규정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말입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축구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진행 중인 경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전환이었습니다. FIFA는 자체적으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벌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수익은 중계권 보유자들이 가져가며, 미국 방송사 하나만을 두고도 약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광고 수익 추정치가 떠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맞는지는 구조보다 덜 중요합니다. 경기 중단이 판매 가능한 방송 시간이 된다는 구조 말입니다.[2] 축구는 오랫동안 45분이 중단 없이 흐른다는 점에서 특이했습니다. 그 사

2 참조: Reuters, 2026년 6월 24일, 22분과 67분의 의무적 음수 시간과 그 공식적 근거에 관해; The Guardian, 2026년 6월 14일, 방송사들이 경기 재개 30초 전에 경기 화면으로 돌아오는 한, 음수 시간 동안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광고 규칙에 관해. 모든 방송사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ITV와 Telemundo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광고 블록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가 이제 채워졌습니다.

같은 논리에 속하는 것으로 결승전의 하프타임이 있는데, 2026년 월드컵에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본떠 유명 음악가들이 등장하는 쇼로 확대되었습니다. 음수 시간과 무대 쇼 둘 다 기원이 같습니다. 팬들 중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둘 다 논의 없이 위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발견입니다. 광고와 쇼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경기 형식은 경기나 관중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시장에 팔릴 수 있는 것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체가 사업을 따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무대에서 관철되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작은 대회들에서 더욱 쉽게 관철될 것입니다.

누가 버는가

숫자들은 웅성거림을 깨끗이 가라앉힙니다. 한 연례 조사는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20개 클럽을 집계하여 그 수입을 세 흐름으로 나눕니다. 경기일 수입(티켓, 음식 제공), 중계 수입, 상업적 수입(스폰서십, 광고, 팬 상품)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약 43%가 상업적 수입, 38%가 중계 수입, 19%가 경기일 수입에 해당했습니다.[3]

따라서 경기장 매표소에서 팬은 더 작은 부분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두 큰 흐름은 팬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계권은 무엇의 가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방송에 붙여 광고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돈을 지불합니다. 스폰서십도 같은 이유로 돈을 냅니다. 팬들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수입의 80 % 이상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팬이 팬으로 존재함으로써 만들어 내는 주목의 시장화 말입니다.

(이 수치들은 세계 최대 클럽들, 가장 브랜드화된 클럽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크라이스리가 같은 하위 리그에서는 계산이 다릅니다. 소시지가 더 많고 스폰서십은 더 적습니다. 이 기계론이 아래로 얼마나 멀리 뻗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정상에서는 분명합니다.)

이 정상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주최자입니다. 대회는 그것을 주최하고, 규칙을 정하고, 참가자를 승인하고, 장소를 정하고, 권리를 파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하나, 즉 월드컵의 FIFA, 올림픽의 IOC는 독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월드컵" 곁에 두 번째 월드컵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수도망 곁에 두 번째 수도망을 세울 수 없

3 Deloitte Football Money League 2026; 2024/25 시즌 매출 상위 20개 클럽 수치, 합계 약 124억 유로.

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을 쥔 자는 중계, 스폰서십, 티켓의 가격을 거의 임의로 정합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이 "임의로"는 새로운 형태를 취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더 이상 고정되지 않고, 증권거래소처럼 수요에 따라 요동쳤습니다. 한 경기에 대한 관심이 오르면 가격이 실시간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와 호텔에서 알려진 것과 같은 동적 가격 형성이자, 티켓을 투기 대상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격은 더 이상 경기가 비용으로 얼마인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바로 그 순간 내어 주는 것을 잽니다. 주최자는 그렇게 열광이 바로 그때 지니는 가치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빨아들입니다. 어차피 실제 상품인 팬의 주목은 이렇게 가장 강하게 솟구치는 순간까지도 짜내집니다.

한 사람이 홀로 무가치한 재화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부패가 가깝습니다. 어떤 밭을 택지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지역 정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FIFA의 역사는 뇌물 체계에서 논란 많은 대회 개최지 선정까지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FIF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계론은 유엔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회원 협회가 유엔 회원국보다 많고, 각자 한 표를 갖습니다. 작은 섬나라 협회의 한 표가 거대한 축구 국가의 한 표와 같은 무게입니다. 이것은 민주적으로 들리며 계산 가능한 결과를 낳습니다. 다수의 작은 협회들이 함께 다수를 이루며, 그들은 위에서 오는 지원, 즉 경기장, 코치, 유소년 선수를 위한 돈에 의존합니다. 이 지원은 실재하며 필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그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존과 감사를 만들어 내며, 위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돌봅니다. 모든 지원이 뇌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접근, 인정, 돈이 한 손을 통해 흐르는 체계는 후견주의, 즉 배분을 통한 지배에 취약합니다. 그렇게 정당한 도움은, 노골적인 매수가 결코 필요하지 않은 채로, 충성의 수단이 됩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은 다수가 유지되는 한 방해받지 않고 남습니다.

이 기계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회의 확대가 보여 줍니다. 참가국은 처음에 48개 팀으로 확대되었고, 개막전 날 FIFA 회장은 다음 단계인 64개 팀으로의 확대를 거론했습니다.[4] 그것을 제안한 것은 남미 축구 연맹이었습니다. 1930년 첫 월드컵 100주년을 맞아 일회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츠적으로는 찬성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더 그럴듯한 것은 다른 셈법입니다. 새 자리는 무엇보다 글로벌 서던의 나라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협회들에 이익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우선

4 이 제안은 우루과이 축구 협회 회장 이그나시오 알론소가 2025년 3월 FIFA 평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남미 축구 연맹(CONMEBOL) 회장 알레한드로 도밍게스는 2025년 4월 10일 연맹 총회에서 이 제안을 대표하여 발표했습니다(Buenos Aires Times, 2025년 4월 10일). 잔니 인판티노는 2026년 6월 11일 브라질 방송사 CazeTV에 이 제안에 대해 말했습니다(Malay Mail, 2026년 6월 13일). 7월에 그는 FIFA 기구들이 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Al Jazeera, 2026년 7월 13일).

그 협회의 임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참가가 그들에게 지원과 명성을 가져다줄 테니까요. 그들에게 둘 다 얻게 해 주는 사람은 그들의 표를 갖게 됩니다. 확대는 더 많은 참여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유지되는 다수를 늘리는 수단입니다. 확대는 위에 앉은 자에게 아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점점 더 기형적이 되는 대회이고, 더 비싸지고 더 멀어지는 팬들입니다.

같은 권력이 누가 도대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든 대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군대가 여러 차례 외국 국경 너머로 폭력을 옮긴 미국은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두 사례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지만, 척도가 없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침략자를 무대에서 내보내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 규칙이 있다면 한 나라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최국이자 거대 시장이자 미디어 권력이며, 대회를 지탱하는 질서의 중심입니다.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대회 자체를 때려 부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국가들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를 결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가장 극명한 경우는 이란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2026년 2월 말부터 개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 나라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6월 11일 대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대표팀이 첫 경기를 치르기 하루 전인 6월 14일에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말 미국은 다시 이란을 공습했고, 결승전을 일주일 앞둔 7월 12일에는 새로운 공격 물결이 이어졌습니다.[5] 그 결과들은 스포츠 측면을 직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대표팀 선수 대부분이 뛰는 자국 리그는 전쟁 때문에 몇 달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팀은 숙소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겨야 했고, 각 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머물 수 있는 단기 비자만 받아 매번 즉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아예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족 간 화합의 축제를 표방하는 대회가, 공이 굴러가는 동안 주최국이 참가국 하나를 폭격하는 일을 용인했습니다. 무대를 질서 짓는 것이 법이 아니라 그 무대를 소유한 권력임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5 2026년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The Daily Signal, 2026년 2월 28일); 전쟁 종식 합의는 2026년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NPR, “The U.S. and Iran announce a deal to end the war”, 2026년 6월 14일); 이란의 첫 경기인 뉴질랜드와의 2:2 경기는 2026년 6월 15일 잉글우드에서 열렸다(Dawn, AFP 보도). 2026년 6월 말과 7월 12일, 트럼프가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미국이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다(Al Jazeera, “US launches new wave of strikes against Iran, aimed at ‘degrading’ military”, 2026년 7월 12일); 결승전은 2026년 7월 19일에 열렸다.

아래에 있는 다수의 헌신과 위에 있는 소수의 독점 지대는 함께 속합니다. 팬의 열광, 그 사태에서 가장 진정한 것은 위에서 이윤이 되는 원료입니다.

거대한 "우리"

처음에, 사무실의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말하는 그 "우리"는 그대로 남는다. 월드컵에서 그것은 가장 커진다.

거기서 누가 "우리"라고 말하는가? 같은 화면 앞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골 장면에서 노동자와 이사, 계산원과 수석 의사가 환호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일 년 내내 현실인 것—계층, 계급, 재산의 차이—이 지양된 것처럼 보인다.

축구는 이 차이와 세 가지 방식으로 관계한다. 어떤 클럽들은 그 차이를 짊어진다: 한 도시의 두 클럽이 맞붙는 곳에서 그 차이는 사회적 의미를 띤다—상류층 클럽 대 서민 클럽, 시민적 클럽 대 대안적 클럽, 그리고 어느 클럽을 선택하느냐는 자기가 누구이며 누구가 아닌지를 말해 준다. 다른 클럽들은 그 차이를 메운다: 산업 도시의 클럽 뒤에는 노동자에서 중역까지 도시 전체가 서 있다. 국가대표팀은 그 차이를 지워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대표팀은 모든 계층을 가로질러 하나로 묶는다.

이러한 공동체는 바깥, 실제 경제에서는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갈라져 있다—위와 아래, 자본과 노동, 가난한 자와 부자. 경기장에서는 바깥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나타난다. 마치 군대에서도 그렇듯이, 평소에는 서로를 가르는 모든 신분이 전우애 속에서 하나가 된다. 계급의 상징적 지양은 체험에서는 실제이지만 결과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면 각자는 자기 처지로 돌아간다.

월드컵에서는 "우리"에 나라가 더해진다. 대표팀은 나라를 대표한다; 대표팀은 단지 체험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체—민족—을 표상하는 공동체다. 그에 따라 규칙들이 달라진다. 클럽들이 아니라 협회들이 출전하며, 어느 나라를 위해 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논리는 개방적으로 전환된다: 다른 출신, 다른 곳에서 태어난 선수는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귀화하고, 팬들은 그가 골을 넣으면 반긴다. 국가적인 것에 대해 평소 제기되는 배제는 그렇다고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수가 국가적 우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동안에는 유예된다. 골을 넣는 자는 속하게 되고, 실패하는 자는 갑자기 다시 출신이 기억되는 이방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팀들이 표상하는 것을 그들은 또한 표현한다. 각 팀은 고유한 색깔, 문장, 마스코트를 갖고 있으며, 종종 그 팀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고

유한 플레이 방식과 태도를 지닌다. 팬들은 이를 이어받아 깃발과 얼굴 페인팅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 나라의 전형적인 것을 민속적 차원까지 밀어붙인다—바이킹 투구, 솜브레로, 국가 색깔의 맥주. 이렇게 상상된 통일은 한여름 동안 다채롭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나라들의 다양성이 한 무대에 나란히 오른다. 그것은 또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평소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먼 나라들에 대해 곁다리로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경기들 사이의 일종의 지리 수업.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것이 유일한 관계인 것은 아니다. 그 옆에는 특히 아름답게 경기하는 팀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다—출신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하나의 향유다. 일부는 이를 고유한 훈장처럼 간직한다: 그들은 단지 국기를 흔드는 것 이상을 하며, 구별할 줄도 알고 아름다움을 칭송할 줄도 안다. 두 태도가 나란히 존재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결국 자기 나라가 이긴다. 그런데 계산은 이상하게도 항상 맞아떨어진다: 자기 팀이 우승 후보를 이기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이고, 비기면 명예로운 결과이며, 지면 애초에 최강 팀을 상대한 것이 된다. 자기 나라는 사실상 질 수가 없다.

작은 자에게 바치는 고유한 호감이 있다—그냥 가라앉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런 것은 그저 기묘할 뿐이며, 자신이 실패하기 전에 큰 팀을 토너먼트에서 탈락시키는 자에게 바치는 호감이다. 이는 어떤 점을 찌른다: 실제 삶에서 대부분은 골리앗보다는 오히려 다윗이다. 작은 자로서 큰 자 속으로 자신을 투영하듯, 사람들은 큰 자에게 한 방을 보여 주는 작은 자 속으로 자신을 투영한다.

더 나아가, 누군가는 대진표에 자기 나라들에 대해 떠오르는 것—그 나라들의 정치, 역사, 세계에서의 지위—을 덧입힌다. 그렇다면 결승전은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옛 식민 강국 대 부상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3세계의 경기가 된다. 그리고 승자를 아는 사람은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같은 경기를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도 있다: 초신자유주의와 트럼프에 가까운 나라 대 다른 전통을 지닌 나라. 두 해석 모두 같은 맞대결에서 나오며, 결과는 각자 애초에 갖고 온 해석을 확증한다. 서로 반대되는 두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못한다. 모든 나라는 충분한 역사를 갖고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그 나라에 부여할 수 있다; 범주의 선택은 원하는 결과에 따른다. 2010년 월드컵에서는 수족관의 문어에게 물었다. 그 문어는 두 먹이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경기를 예측해야 했다. 그의 선택과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다. 정치적 덧입히기는 구조상 같은 움직임이다—사물 자체에는 그것을 지지할 아무것도 없는데도 밖에서 사물에 갖다 붙인 연관—, 다만 자신이 심오하다고 여길 뿐이다. 열한 명이 열한 명과 경기한다; 누가 이기느냐는 그날의 컨디션, 우연, 심판 판

정에 달려 있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달려 있지 않다. 충족되는 것은 경기가 제공하지 않는 의미에 대한 욕구다.

그러나 나라는 클럽이 아니다. 클럽과 나를 묶는 것은 선택 외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은 자기 나라에 실제로 의존한다—법률, 세금, 보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동일시는 클럽에 대한 동일시만큼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민족 간 우애와 훌륭한 패자의 가면 아래에는 여전히 국가들 간 경쟁이 흐르고, 그것은 실재하는 것에 닿는다. 계급 화해 속에서 이미 이데올로기, 즉 아편을 보았던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여기에서 더 날카로운 사례를 발견한다. 경기의 "우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과 그들의 정책까지 포괄한다—바로 그 정책에 불만이 있거나 그 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에도 말이다. 이는 자기 나라에 대한 비판이 쉽게 자국 헐뜯기로 간주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통치자들이 경기의 광채 속에서 관중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그 광채가 그들에게 조금 옮겨진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 광채는 통치자들에게만 옮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한 시민에게도 미친다. 대표팀이 막 빛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은 외국에서 그 일로 말을 건네받는다—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해낸 것처럼. 자기 나라에 훌륭한 대표팀이 있으니, 자신도 그 나라와 함께 조금은 훌륭해진다. 그로부터 많은 것이 따라오지는 않지만, 약간의 호감은 생기고, 그 호감은 낯선 사람과의 교제에서 중요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상징적 화해는 실제 분열에 맞서야 한다는 압박을 완화한다—축구는 몇 시간 동안 평등의 느낌을 주고 실제 평등에 대한 요구의 예리함을 꺾는다. 빵과 서커스. 또는 체험된 통일은 그토록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의 전조다—계층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가르는 것이 최종적인 말을 갖지 않는다는 기억이다. 그렇다면 축구는 달래는 것이 아니라 깨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들에 달려 있다.

열린 채로 남는 것

어떤 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서로 맞서는 즐거움, "우리 대 그들"에 대한 깊이 자리한 욕구, 그 뿌리는 열린 채로 남습니다. 훌리건의 폭력은 팬임에서 설명되지 않고 그것의 전화(轉化)에서 설명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자신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상징적 대립이 실제적 대립으로 기울고, 배출구가 발화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형 클럽들을 통해 보여주었지만, 공동성의 진

짜 흔적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동네의 작은 클럽에는 어느 정도까지 해당하는지 하는 물음도 남습니다.

축구는 동시에 놀이와 노동이고, 공동체와 사업이고, 진실한 감정과 팔리는 주목이고, 상징적 화해와 아마도 실제적 화해의 선취입니다. 골이 터질 때 수천의 목청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한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사람은 그 후에 그것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골에서는 또다시 외칩니다.